

극단Y x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접근성 제작 과정 기록

# CONTENTS

## 01. 접근성 제작 준비

2월. 무엇을 어떻게

3월. 접근성 LIST UP

## 02. 접근성 제작 과정

4월부터 9월까지

## 03. 관객 모니터링

농인 관객 모니터링

SNS 관객 후기

## 04. 창작자 후기

접근성 매니저 : 강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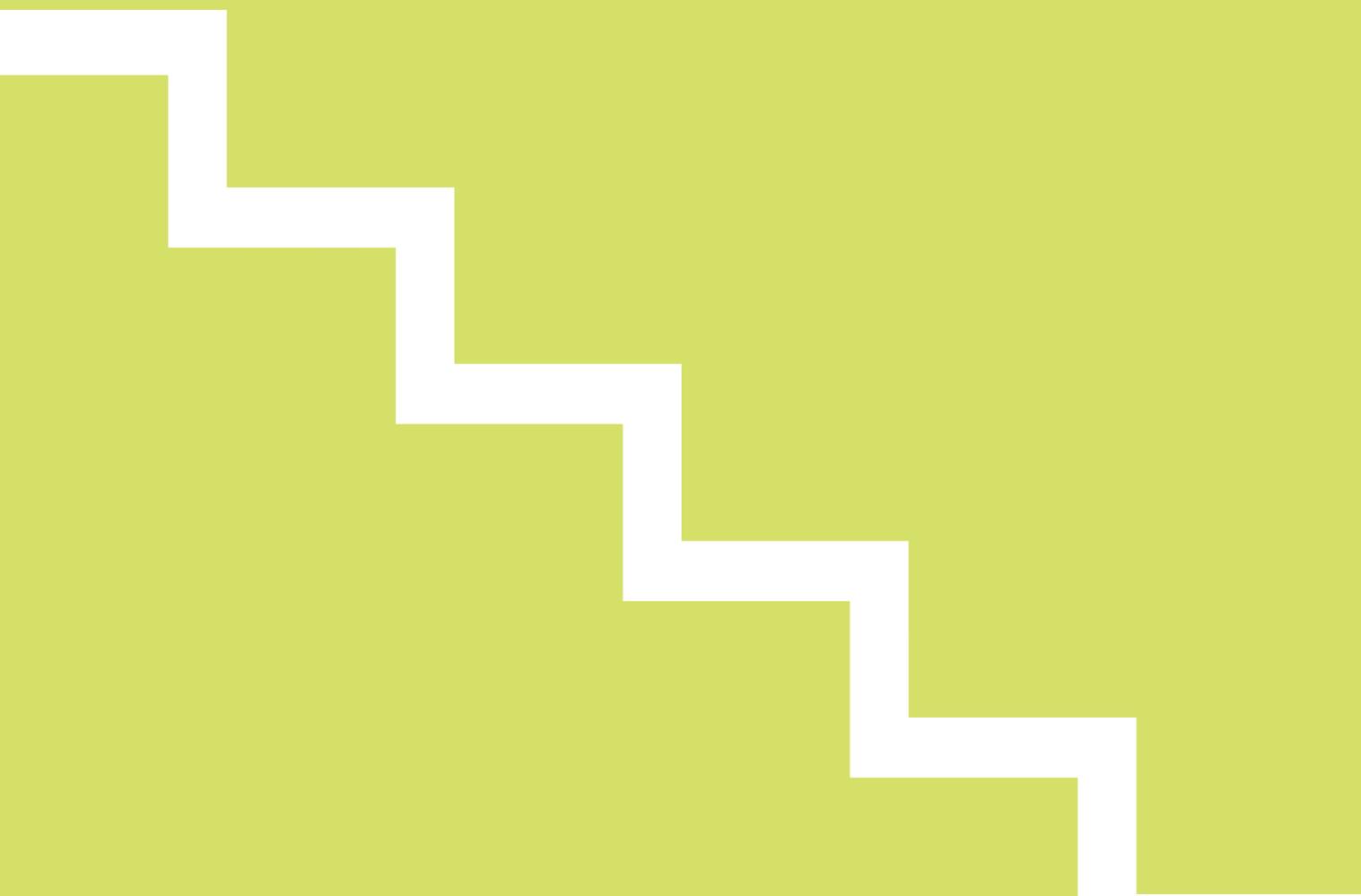
자막제작 : 임민정

#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연극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의 접근성 제작 기록은  
강윤지 연출의 연출노트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창작 과정 내에서 접근성을 고민하며 발생한  
개인적인 고민들을 노출시키고,  
그로 인한 결정과 조율 등을 기록함으로써  
접근성을 고민하는 창작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01

## 접근성 제작 준비



## 2월. 무엇을 어떻게

연극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은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지원 A트랙에 선정되어 공연 준비에 돌입했다. 언제나 그렇듯 공연을 제작하기에 빠듯한 금액이었고, 일명 ‘배리어 프리’라고 불리는(‘배리어 프리’라는 단어보다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지향한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들을 섭외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한글 자막해설이라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을 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접근성 제작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체감이 들어 그동안 애쓴 창작자들과 극장의 직원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여러 고민이 들었다. 적은 제작비로 인해 접근성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로덕션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고민 1.** 접근성은 모든 스태프들과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한데,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조연출 및 접근성 매니저가 없었다.

**고민 2.** 연습 기간은 고작 6주였다. 공연을 만들기엔 빠듯한 시간이었다. 접근성의 경우, 공연이 거의 다 완성된 이후에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환경이 있는데 충분한 연습 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고민 3.** 마지막으로 부끄럽고 내밀한 고민을 고백한다. 전화차수어통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왔고, 필요하다고 발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화차수어통역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으니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연출은 공연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여 배우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대체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 수어 통역사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시선 분산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고민은 접근성 매니저를 섭외함으로 해결했고, 두 번째 고민은 현실적으로 연습 기간을 늘릴 수는 없었기에 한글 자막해설과 수어통역, 이렇게 두 가지 접근성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고민에 대해 좀 더 서술해 보고자 한다. 주변 창작자들에게 관련된 고민을 물었을 때, 비슷한 고민 때문에 혹은 예산 때문에 2~3회차 공연에만 수어통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다. 선택할 수 있겠지만, 3년 전 농인 창작자를 만난 이후로 공연 때마다 접근성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극장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 두 번째 고민과 세 번째 고민 사이에는 중요한 고민이 또 하나 있었다. 창작자로서 자기 착취의 끝판 왕이 되지 않고, 나라는 한 사람이 너무 갈리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가 필요했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자명했으나, 그 것이 한 사람의 자기 착취로 완성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잘 챙기고 싶었다. ‘노오력’할 정신과 힘이 내 안에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전회차 수어통역을 했을 때의 장점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 **장점 1. 셋업과 리허설의 소요시간이 줄어든다.**

수어 통역사들이 있을 때의 버전과 없을 때의 버전이 있기 때문이다. 조명도 달라지고, 배우들도 통역사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감각이 다르다. 수어 통역사님들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언제 오실지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다.

### **장점 2. 수어통역이 필요한 관람객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예를 들어 2주 공연 기간 중에 토, 일 2회차만 수어통역이 있으면 이들 중에 하루만을 골라야 하는데, 전회차를 진행한다면 2주 중에 하루를 고를 수 있으니까!

### **장점 3. 전회차 수어통역이 있는 공연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제작비 부족으로 인해 전회차 섭외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결론이 나왔다.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해두자.”**

수어 통역사님들이 어디에 계실지, 자막판은 어디에 달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고민하여 초반 세팅을 잘 해두면 되는 것이다. 말처럼 쉽지는 않고, 결심과 다르게 이번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고민할 것.

배우들도, 수어 통역사들도, 둘 다 잘 보이는 방향을 찾아낼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고 잘 풀어내리라 다짐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하고 싶었고, 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노오력’해 보기로 결정했다.

# 3월. 접근성 LIST UP

개방형 한글 자막해설, 수어통역, 전회차로 결정.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 접근성 매니저 섭외
- 한글 자막해설 디자이너 섭외
- 한글 자막해설 오퍼레이터 섭외
- 자막용 프로젝터 대여
- 자막 송출판 제작/철수/파기
- 수어 자문/통역사 섭외
- 현장 운영(수어통역 안내) 스태프 섭외
- 장애 당사자 모니터링/자문
- 접근성 안내 영상 제작

## LIST UP에 관한 고민들

### 1. 자막판을 쓸 것이냐 모니터를 쓸 것이냐

모니터가 선명하지만 좌우 사이트에 배치되게 되는 점이 걸렸고, 자막판과 프로젝터를 사용하면 무대 중앙에 배치할 수 있어 더 잘 보이지만 조명 빛에 따라 잘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떠올랐다. 레이저 8000안시 프로젝트를 대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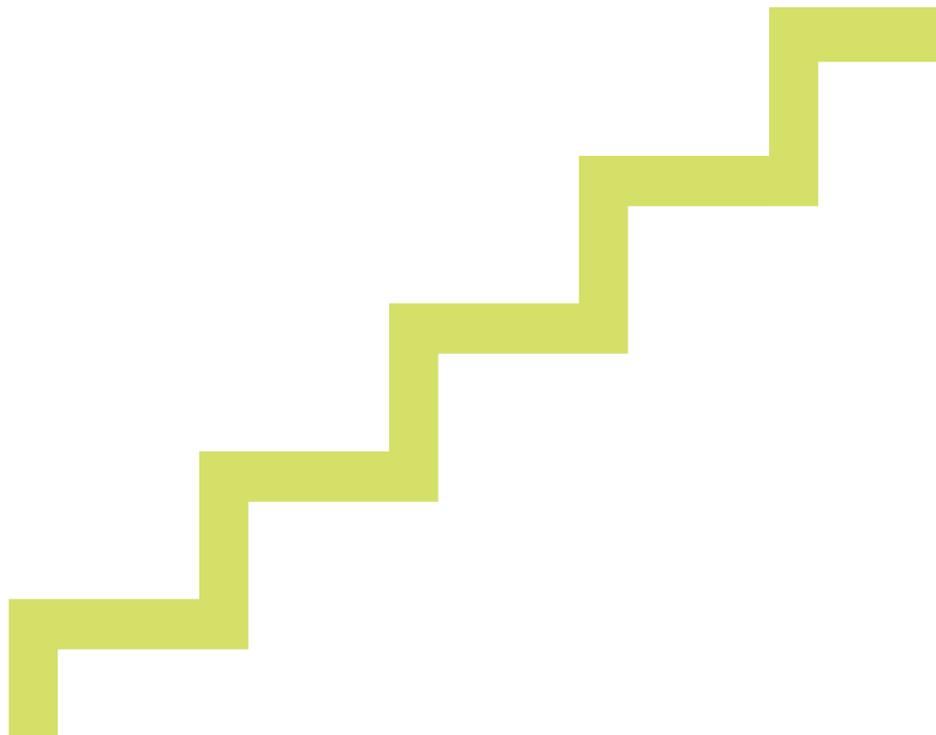
### 2. 한글 자막해설 디자이너와 오퍼레이터를 분리할 것인가 한 명에게 모두 의뢰할 것인가

한글 자막해설은 극장에 들어가면 수정의 연속이다. 배우들의 입맛에 따라 변하는 대사들도 있고, 현장에서 바뀌는 대사들도 있는데, 자막이란 게 한 페이지만 수정되면 그 뒤 페이지들도 대부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접근성 매니저님도 계시긴 했지만, 언제나 더블 체크가 중요한 부분이다. 디자이너님과 오퍼레이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라면 분리하여 섭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3. 접근성 안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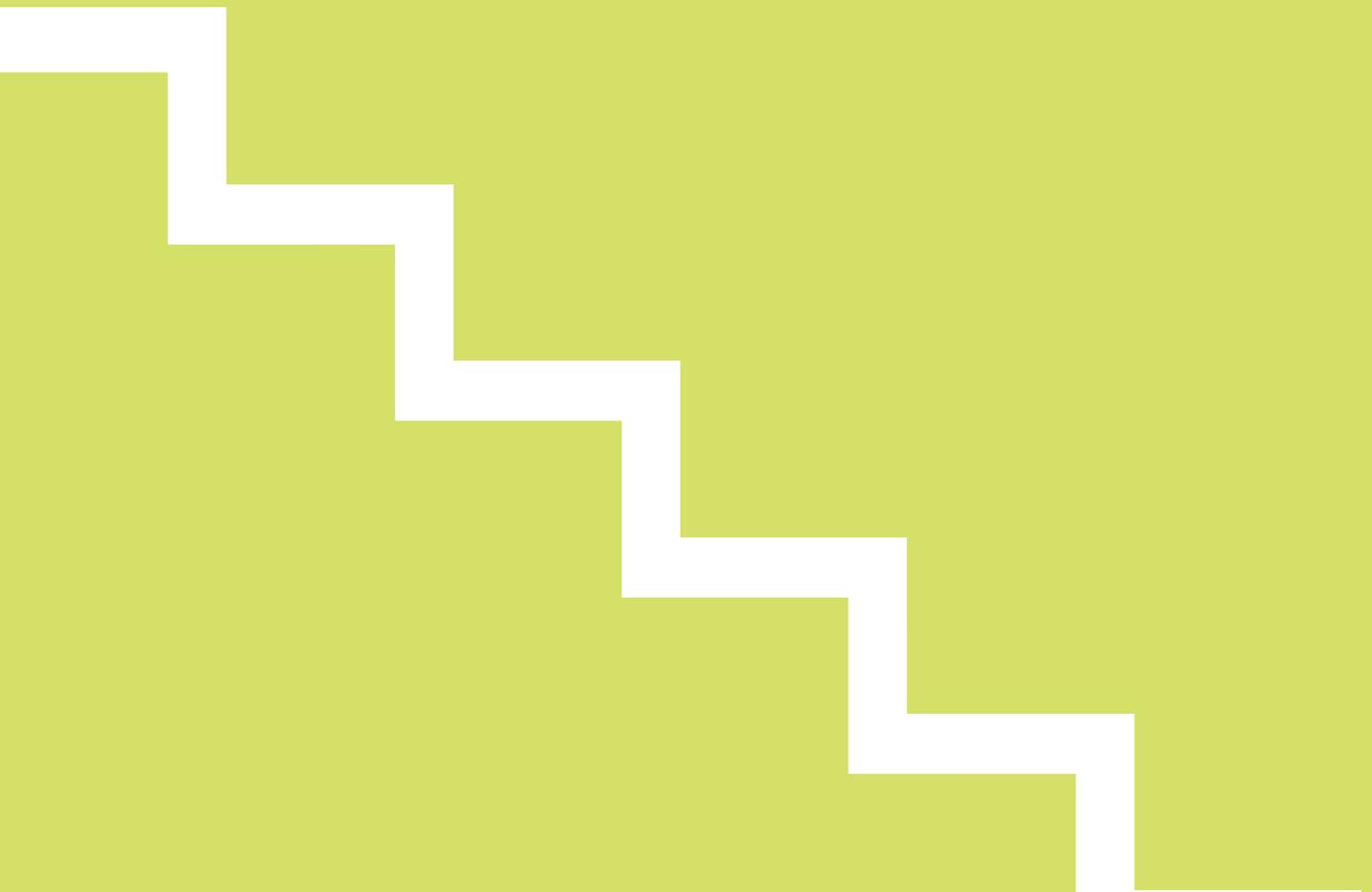
- 1) 음성소개(공연 개요, 예매 방법, 줄거리, 포스터 소개) 영상 제작
- 2) 수어 홍보 영상 제작
- 3) 사전 설명 (작품 소개, 배우 소개, 캐릭터 소개, 무대 소개) 영상 제작

※ 초반 세팅과 다르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부분들이 있지만, 최종 실행 버전으로 LIST-UP 했습니다.



# 02

## 접근성 제작 과정



# 4월부터 9월까지

## 4월 접근성 매니저 강보름 섭외

## 5월 1일. 접근성 회의

참석자 : 강윤지 연출, 강보름 매니저

- 전반적인 상황 공유 및 업무 논의

### 1. 전화차 개방형 한글자막

자막판을 사용하면 수어 통역사 위치에 따라 조명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 것 우려 - 무대디자이너와의 회의 필요

### 2. 전화차 수어통역

- 접근성 안내 영상, 사전 홍보영상

- '공인수어통번역 잘함'에 의뢰해보기로 함

- 섭외 후 미팅 필요

### 3. 모니터링 관객이 있으면 좋겠다.

### 4. 음성소개 오디오 파일 제작

포스터와 함께 공개할 것, 접근성 매니저님이 스크립트 작성 후 배우 녹음 필요

### 5. 극장 휠체어석 확인 필요

### 6. 하우스팀의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이동지원 혹은 접근성 스태프가 한 명 더 필요할 수도 있음

- 안내 수어 통역사 필요

## 6월 7일. 무대 컨셉 회의

참석자 : 강윤지 연출, 조경훈 무대디자이너

- 자막판 및 수어 통역사 위치 고려할 것

**6월 19일. [접근성 공연제작] ZOOM 회의**

참석자 : 강윤지 연출, 강보름 접근성 매니저, 김홍남 수어통역사,  
나희경 PD, 이유진 차장

- 수어 통역사들에게 연습일지를 공유할 수 있을지 : 연습실에 연출과 배우 둘 뿐이라 연습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접근성 매니저님이 연습 참여하시는 날 최대한 기록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 연습실 근방에 수어통역사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 장애인 관객 모니터는 공연 전 리허설이나 초반 회차 때 진행된다.
- 홍보물(포스터)이 나갈 때 자막 및 수어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픽토그램이나 텍스트로 포스터에 기재가 되면 어떨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수어통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엠블럼 디자인 활용 가이드] 참고.



수어 엠블럼이 들어간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포스터

## **7월 25일. 첫 연습**

참석자 : 강윤지 연출, 강보름 접근성 매니저, 나희경 PD, 이유진 차장,  
조경훈 무대디자이너, 권은혜 배우, 이청 배우

1) 관객과의 대화 진행 여부 협의. 실시간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준비 요청.

2) 영상 기록 촬영 협의

- 영상 기록 촬영에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지속되었다. 전화차 수어통역에 수어 통역사님들이 계속 함께 이동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배우 분들이 잡고 있을 때에도 수어 통역사님들이 화면에 함께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어 통역사님들이 화면에 함께 나와도 상관없으니 공연 중에 촬영할 것, 다만 영상 제작과정에서는 수어 통역사님들이 없는 버전과 양쪽에 수어 통역사님들이 크게 보이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 **8월 5일. 수어통역 회의**

참석자 : 강윤지 연출, 강보름 접근성 매니저, 나희경 PD, 이유진 차장, 전서아 작가,  
김홍남 수어 자문, 조유나 수어 통역사, 이수현 수어 통역사



무대디자인 스케치업

- 사다리 높이 및 자막 위치에 따라 자막판이 걸릴 수도 있음 우려. 그에 따른 수어 통역사님들 위치 고민.
- 전반적인 대본 및 연출 컨셉 설명, 배역별 인물 설명,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대사 번역
- 대본 내의 공간적 위치(어떤 구조의 집인가, 기차길과 시장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
- 수어통역 관련 : 통역사님들이 배우들과 밀착되어 있을 때는 언어 기능만 가져가고, 떨어지면 표정 값을 쓴다.
- 소리 정보가 공간의 배경일 때는 반드시 수어통역이 되어야 함.
- 퀴어 용어는 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에서 낸 수어 차용.

## **8월 6일. 수어/자막 영상 공개**

연극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수어, 자막 안내

[https://youtu.be/8FBTjtPsrTE?si=R\\_Hs560rOp6a8EFe](https://youtu.be/8FBTjtPsrTE?si=R_Hs560rOp6a8EFe)

대본작성 : 이유진

수어번역 및 통역 : 김홍남

연극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에 대한 공연 안내입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부터 9월 17일 일요일까지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에 있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평일 공연은 오후 8시, 주말에는 오후 4시에 공연하며, 공연 소요 시간은 약 80분입니다.

연극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의 모든 회차는 수어통역, 한글자막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소개입니다.

두 명의 여성, 퀴어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담은 2인극입니다. 다름과 차이, 일상의 연애와 헤어짐을 '이사'라는 사건을 통해 그려낸 작품입니다. 배우 권은혜, 이청이 출연합니다.

공연단체는 '극단Y'이고, 전서아가 글을 쓰고 강윤지가 연출했습니다.

수어 통역은 김홍남, 이수현, 조유나가 함께 합니다.

관람료는 3만원입니다. 티켓예매는 예술극장 홈페이지 [theater.arko.or.kr](http://theater.arko.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 (02-3668-0007)로 전화 예매만 가능합니다.

휠체어 이용 관객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아르코 배리어프리]를 검색하시면  
문자 소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어/자막 영상 촬영,  
2023.7.23. 아르코예술극장

**8월 11일. 스태프회의**

참석자 : 조경훈 무대디자이너, 홍유진 조명디자이너, 이효진 무대감독,  
임민정 자막디자이너, 나희경 PD, 강윤지 연출, 강보름 접근성 매니저

스태프들과 함께 자막판 사이즈 및 위치 고려. 자막판을 동그란 모양으로 해 볼 수 있을지, 무대 디자인 컨셉에 잘 묻게 할 수 있을지 등의 고민이 오감. 사다리 및 자막판에 전구와 사다리로 인한 시야 제한이 있지는 않을까 등의 내용을 회의.

**8월 15일. 첫 런스루**

수어 통역사님들의 첫 연습실 방문.

수어 통역사님들 위치를 먼저 잡고 그와 함께 배우들의 동선을 고려해야겠다는 애초의 다짐과는 다르게, 배우들의 동선을 먼저 정리하고 이에 수어 통역사님들의 동선을 어떻게 붙일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순서가 수정되었다. 그간 수어 통역사님들은 대학로예술극장 리딩룸에서 대사를 번역하였고, 첫 런스루를 토대로 김홍남 선생님이 동선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8월 16일. 음성소개 녹음**

<https://cool-lion-c93.notion.site/add1c7f0461243649b56d45241d81011>

대본작성 : 강보름

음성 녹음 : 이청

연극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음성소개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서아 작, 강윤지 연출의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은 2023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평일 8시 주말 4시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전화차 한글 자막해설과 수어통역이 진행됩니다.

공연시간은 약 80분입니다.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에는 두 명의 여성 퀴어가 등장합니다. 레즈비언 유진과 바이섹슈얼 하나는 오랜 연애 후 헤어졌는데요. 유진 역에는 권은혜 배우, 하나 역

은 이청 배우, 제가 맡았습니다. 이사를 계기로 갑자기 연락한 유진과 그럼에도 유진을 찾아온 저, 하나는 함께 집을 옮기고 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짐할 수 없는 입장 차이로 과거의 해묵은 감정들이 되살아나지만, 사랑하고 미워했던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이제서야, 진짜로, 헤어지게 됩니다. 유진과 하나가 헤어지며 나누는 돌봄과 공존에 대한 이야기. 극장에서 함께 만나요.

[포스터 소개]

허름한 연립주택, 서로 다른 층 계단참에 유진과 하나가 서 있습니다. 마치 지그재그 모양의 난간처럼 보이네요. 유진은 1시 방향에서 하나를 내려다보고, 하나는 9시 방향에서 유진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섞인, 아련하고 애뜻하면서도 애써 아무일 아닌 척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매 방법]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02-3668-0007 | [theater.arko.or.kr](http://theater.arko.or.kr)

인터파크티켓 | 1544-1555 | [ticket.interpark.com](http://ticket.interpark.com)

문의 010-\*\*\*\*-\*\*\*\*



음성소개 녹음  
2023.9.5

## **8월 23일. 극장 스태프 회의**

안내 수어 통역사 위치 및 프로젝터 위치 협의

9/12(화) 관객과의 대화 진행시 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진행 협의

## **8월 24일. 공연 접근성 안내 영상 촬영**

<https://cool-lion-c93.notion.site/add1c7f0461243649b56d45241d81011>

※ 의상을 확정 짓지 못하여 촬영 당시 녹음하지 못하여 아쉽다. 빠른 준비를 권장 드리지만, 대부분의 팀이 의상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시기적으로 더 늦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촬영하여 홍보를 시작하는 것이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 [작품소개]

강윤지 : 안녕하세요. 연극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연출을 맡은 강윤지입니다.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은 레즈비언 유진과 바이섹슈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후 헤어졌는데요. 어느 날, 이사를 도와달라는 유진의 연락에 하나가 평화맨션을 찾아오며 시작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박스를 열고, 쏟으며, 묵혀있고 쌓여있는 짐들을 풀어냅니다.

### [배우 및 인물소개]

권은혜 : 안녕하세요. 유진 역의 권은혜입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이고 다부진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이 보이고 귀가 파인 짧은 머리입니다. 볼살이 없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편이고 각진 턱을 가졌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과 볼에 있는 주근깨가 매력적입니다.

유진은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온 벽장 레즈비언입니다. 말보다는 생각이 많고, 행동하기 전에 오래 고민하고 망설이는 인물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말과 행동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고 문제에 대해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물어두거나 모른척 하려는 등 다소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청 : 안녕하세요, 하나 역의 이청입니다. 저는 작고 아담한 체형입니다. 유진 역의 권은혜 배우보다 체구가 아주 조금 더 작습니다. 계란형 얼굴에 눈에는 쌍꺼풀이 있고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편입니다. 입이 크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한 편입니다.

머리카락은 쇄골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파마머리입니다. 하나는 바이섹슈얼 정체성을 지닌 퀴어 여성입니다. 유진의 전 연인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이름처럼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핍을 지녔지만 내게 닥친 고난을 씩씩하게 견뎌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도 가졌고 생활력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연에서 유진과는 다르게 다소 빠르고 급한 움직임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 [무대 소개]

강윤지 : 무대 중앙에는 지름 2M의 동그란 보라색 카페트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카페트를 중심으로 점차 커지는 원형선이 네 줄 그려져 있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선의 색은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점점 열어집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궤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보라색 카페트를 중심으로 유진이 이사온 방으로 사용되며, 점차 유진의 공간을 넓히듯 사용합니다. 세 번째 원 사이에 양 쪽으로 사다리가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 사다리는 105cm, 오른쪽 사다리는 166cm입니다. 사다리는 유진 집의 테라스로 사용됩니다. 궤도 바깥에서 유진의 이사짐, 박스들이 동그랗게 놓여져 있어 유진과 하나는 궤도를 벗어나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게 됩니다.

#### [관극 포인트]

이청 : 제가 생각하는 관극 포인트는 두 사람이 꺼내고 쏟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정리하는 책들입니다. 책은 저희 둘의 역사이자 기억이기도 하고 또 과거이자 미래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이 공연의 작은 관극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혜 : 둘은 서로를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둘의 눈맞춤이 생기는 순간이 아주 귀한데요. 이제는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을 사람이 된 전 연인인 하나와 유진이 이사라는 핑계로 다시금 마주하게 되면서 맺지 못했던 둘만의 끝인사를 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 : 제가 느꼈을 때 이 작품의 매력은 보통 헤어지면 상대보다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상대는 조금 더 힘들어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들도 그런 시간을 잠깐 겪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세상은 조금 시끄러울지라도 각자의 우주는 평화롭기를 바란다는 점이 좋아요.

헤어진 연인을 서로의 인생에서 없었던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상대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편안히 걷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출 포인트]

강윤지 : 저는 이 공연이 퀴어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목소리, 그리고 살아 나가기  
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헤어짐과 연결됨이 공존  
하는 이야기라고 읽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관계든, 헤어진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고 지칠 땐 잠시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는데요. 스쳐 지나간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다는 확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상대  
를 향한 미움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이 세계 어딘가에서 공존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서아  
작가님과 함께 나누며 이번 공연의 대본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진과 하나의  
세계가 쏟아지고 무너지더라도 하나씩 이삿짐을 정리해나가면서 조금씩 넓어지  
기를, 또 이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걷기를 바라며 연출했구요.  
권은혜 배우님, 이청 배우님과 정말 즐겁게 연습하고 있어서  
두 배우의 케미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접근성 안내 영상

## 8월 28일~9월 3일. 수어통역사님과 동선 만들기

※ 연출 관점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어통역사님들과 동선을 정리하는 주간이었다. 김홍남 자문/수어통역사님이 기본적인 동선을 짜 주시고 연습에 돌입했다. 배우와 수어통역사들이 1:1로 그림자 통역을 하는 포맷을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어떤 장면에서는 그림자를 할 수 없어 무대 사이드에 수어통역사들이 서게 되는 그림과 배우들을 따라다니며 그림자 통역을 하는 그림이 중첩되었다. 유진 역의 경우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많았는데 수어통역사와 배우가 함께 모든 액팅을 진행했을 때 전반적으로 시선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할지 헷갈리는 지점이 많았다. 액팅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계속 영상을 찍고 돌려보며 동선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결정은 모든 동선(앉았다 일어났다)를 같이 하지 않을 것, 수어통역사들은 가급적 언어로 존재하되 대사가 없을 때는 등장인물들을 바라봐주는 존재가 되어줄 것, 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동선’은 항상 나의(연출의) 머릿속에 있거나, 내가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동선’을 전달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나 수어통역사의 동선이어서 더욱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지만(드라마 중심이 아니라 배우 동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동선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배우의 동선은 나에게 한 번 보고 들으면 각인되는 이미지에 가까운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었다. 김홍남 자문/수어통역사님이 수어통역사들의 동선을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신 파일이 없었다면 연습 진행이 무리였을 정도다.

두 번째는, 내가 수어통역사들이 무대 한 측에 고정적으로 있는 그림에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어통역사들이 무대 사이드에 고정되어 수어통역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서(선택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화차고,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배우들의 동선에 따라 통역사들을 상수와 하수에 한 명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동선 정리에 돌입하였는데, 이후 농인 관객들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피드백을 나누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다시 두 명의 수어통역사들을 같은 사이드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수어통역사들의 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배우들의 동선을 수정하기도 하고, 연출(청인) 입장에서 좋은 위치와, 농인 입장에서 편한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계속 확인과 수정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던 수어통역사들의 기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어통역사들의 동선이 깔끔하게 정리되길 바라면서도, 배우들을 1:1로 따라다니며 그림자 통역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수어통역사들이 두 명의 배우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는 가급적 없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들이 충돌하는 시간이었다. 작품 “때문에” 수어통역사들이 덜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도 싫었고, 수어통역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도 싫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가 “때문에”라는 요소가 되는 것 자체가 싫었다. 수어통역이 있기에 배우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을 찾고 싶었다. 무엇을 포기하는 선택 보다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져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 결국 선택은 연출의 몫이다. 이 시기가 찾아오니, 역시 좀 더 많이, 더 일찍, 동선에 대한 대화를 보다 더 많이 나누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고군분투했던 일주일이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청인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수어통역사들이 배우들의 옆에 가급적 붙을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두 배우의 거리가 멀어지면 수어통역사들도 함께 멀어졌다. 무대를 원형으로 쓴다는 특징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정도 있었지만, ‘청인의 입장일 뿐’이라는 위험과 한계를 인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다른 공연을 하게 되더라도 분명 ‘우리 공연이 ~ 어떤 이유 때문에’라는 변명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았다.

연습을 진행하며 무대 전체 컨셉인 ‘궤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수어통역사들의 위치와 무대 컨셉을 어떻게 붙여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궤도의(무대 동선상) 법칙이 어긋나더라도 수어통역사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 것, 효율적인 움직임 만들 것, 이었다. 그리고 둘 다 잘 보인다면 조금씩 궤도(서 있는 곳)의 차이를 두고자 했다.

이 시기에 대한 개인적 회고라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고민하던 스스로가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같이 통과해 준 연습실 안의 권은혜 배우, 이청 배우, 김홍남 자문/수어통역사, 조유나 수어통역사, 이수현 수어통역사가 있다.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연습실에서 가능성을 찾는 시간이었다. 무엇이 불편하고 불가능한지, 무엇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함께 고민했다. 그렇게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은 2인극이 아닌, 2명의 배우와 2명의 수어통역사가 함께하는, 4명의 무대가 되었다.

**9월 5일.**

**안내멘트 녹음**

멘트 작성 : 강보름

녹음 : 이리(배우)

안녕하십니까, 아르코예술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사진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출구는 입장했던 출입문 바깥쪽에 있으며,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하오니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계단을 이용하여 최종집결지인 마로니에 공원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피 시 도움이 필요한 관객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연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공연 도중 퇴장을 원하실 경우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원은

하우스 안내원 : (박수) 여기 있습니다!

본 공연은 전 회차 대사 및 소리 정보 등을 표시한 한글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자막은 무대 상부에 있으며, 두 명의 수어통역사가 배우와 함께 무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body. Welcome to ARKO Arts Theater.

Inside the hall, taking photographs and video recording of any performance without the permission is strictly prohibited.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Emergency exit is outside the door through which you entered.

In case of emergency, follow the instructions our ushers, and do not take the elevator.

Take stairways to evacuate the theater to the Emergency Assembly Point, Marronnier Park.

Any children, the disabled, the elderly mobility difficulties, please ask for additional assistance for evacuation.

Please understand that for the sake of everyone's safety, the performance may be suspended in case of any urgent situations. If you wish to exit during the performance, raise your hand, and our ushers will assist you.

This performance provides Korean subtitles displaying dialogue and sound information, as well a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he subtitles are located at the top of the stage, and two sign language interpreters will be present on stage with the actors.

Now, we begin the performance of "The Peaceful Mansion on the Hill." Thank you.

**9월 7일.**

**공연 전 저녁 리허설, 농인 관객 모니터링**

안내 수어 통역사 위치 및 프로젝터 위치 협의

9/12(화) 관객과의 대화 진행시 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진행 협의

**9월 8일~17일.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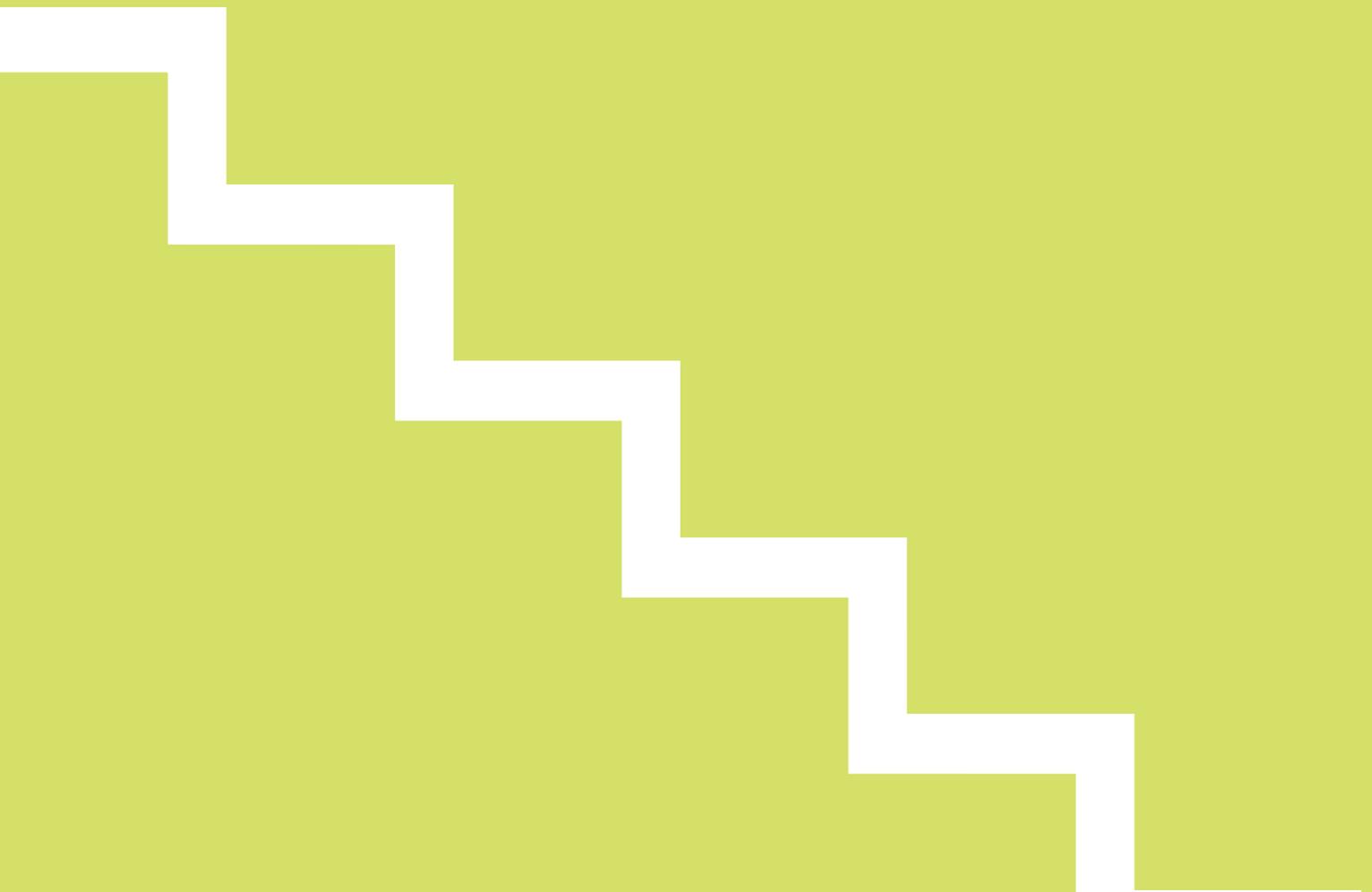
- 전회차 한글자막 및 수어통역 진행
  - 전회차 안내수어통역사 티켓부스 상주
  - 접근성매니저 상주(안내보행 및 접근성 안내)
  - 접근성 관련 영상 QR 코드 비치
  - 9월 12일, 관객과의 대화시 AUD 실시간문자통역 실시.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용 및 접근성 여부에 따라 마이크도 준비.

**카카오톡  
운용멘트**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공연과 관련해 궁금한 것들, 공연을 보고 느낀 소감 등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두의 안전한 대화 참여를 위하여 공연과는 상관없는 내용의 혐오와 비난,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03

관객  
모니터링



# 농인관객 모니터링

## 피드백

1. 중앙 3, 4열이 수어통역과 자막을 같이 보기 좋은 자리라는 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수어가 멀어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중앙에 있는 자막판과, 배우들을 따라 함께 이동하는 수어통역사들 동선에 따라 좌, 중앙 상부, 우,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보아야 할 때 눈이 너무 피곤하다.
2. 자막이 넘어가는 게 너무 빠르다.  
수어와 자막을 같이 보려면 조금 더 천천히 가 줬으면 좋겠다.
3. 뾰뾰 매미소리 / 덜컹덜컹 기차소리 이런 식으로 의성어 소리 정보가 추가되면 좋겠다.
4. 귀어 관련 단어 공연 시작 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5. 수어통역사들이 회전하는 움직임이 보기 불편하다.  
회전할 때 누가 누구인지 헷갈린다.  
하수에 앉으면 수어통역사 두 명이 상수에 갔을 때 시야가 안 보인다.
6. 자막이 조명 빛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7. 커튼콜 마지막 노래가 있는지 몰랐다.
8. 필요할 경우 안내 수어통역사가 극장 앞으로 마중 나가서 객석까지 이동지원도 가능하면 좋겠다.
9. 안내 수어통역사 명찰을 달고 있으면 좋겠다.

## 지금 할 수 있는 것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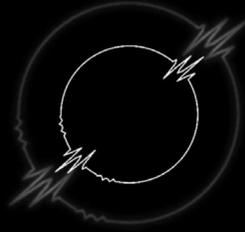
1. 1열에서 보기에는 자막판이 높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미 자막판은 배우 머리 위까지 최대한 내려둔 상태였기 때문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예매사이트에 공지하였다.

중앙 1,2열은 자막 위주로 관람하시기에 용이합니다.

중앙 3,4열은 자막과 수어통역을 함께 보기에 용이하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어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야를 고려한 좌석 예매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막은 넘어가는 형식이 아닌 롤업 형식으로 가장 오래 무대 위에 남을 수 있는 포맷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어와 자막을 같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자막 오퍼레이팅을 배우의 대사에 맞추기보다는 수어의 시작에 맞추며 조금 천천히 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3. 덜컹덜컹 기차소리, 와 같은 의성어 소리 정보 표기를 수정.
4. 티켓박스의 안내수어통역사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귀어 관련 수어를 안내했고, 티켓 수령 시 귀어 관련 수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프린트하여 비치하였다.
5. 공연 전날이기 때문에 수어통역사들의 동선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으로 판단, 배역별 수어통역사의 상의 디자인에 차이를 두었다.
6. 자막이 안 보이는 부분은 다시 점검.
7. 커튼콜 마지막 노래의 표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야기가 오갔는데, 가사를 표기할지 의논하다가, 김홍남 수어통역사님의 의견으로 '무언가를 더 읽어야 한다는 감각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감각적인 표기'를 차용하여 마지막 커튼콜 노래를 이미지화 시켰다.

♪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되는 음악에 맞춰 얇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보컬이 부르는 노래,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분위기] 순간 -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자막해설 마지막 페이지  
(커튼콜 노래-파동)

8. 안내 수어통역사가 티켓 수령을 지원한 후, 객석 안내는 접근성 매니저가 인계받아 진행하였다..
9. 안내 수어통역사는 명찰을 달고 상주하였다.

## ▶ SNS 관객 후기

굵직하게 두 가지 분류의 후기로 나뉜다.

### 1. 수어통역사가 극 안에 함께 존재하는 연극

- 수어통역사가 극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 안에 존재하는 양식
- 수어통역사가 무대 안에 같이 있는 공연은 처음
- 배우가 수어와 음성언어를 동시에 하면서 무대 컨셉(궤도)에 대한 이해가 되었음
- 수어통역사들이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이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보여 주는 것 같았고, 우주 다른 공간에 위치한 커플처럼 보였음

### 2. 2인극 \* 2인극

- 배우 수대로 수어통역이 있는 극은 두 개의 연극이라는 걸 느꼈음
- 더블캐스팅을 한 무대에서 동시에 보는 느낌
- 무대 위에 두 커플을 보는 느낌

그 외로 수어통역이 있는 극을 처음 봤다는 후기가 5개.

3회차 관람객은 3회차 관람시에는 수어통역사만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것이 흥미로웠다.

04

창작자  
후기



# 창작자 후기

청인/개인의 위치에서만 후기가 남는 것을 경계하며,  
함께 작업 했던 창작자들의 고민을 공유해 주기를  
요청드렸다.

접근성 매니저 : 강보름

자막제작 : 임민정

## ▶ 접근성 매니저 : 강보름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공연팀은 극단Y와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등 여러 제작 주체들의 협업 덕분에 접근성 매니저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다.

2020년 대관 당시에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 극장 측과 소통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극장에서는 그동안 극장이 쌓아온 역량인 이유진 접근성 프로듀서와 함께 협업하면서 접근성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연팀의 접근성 증대 대상을 농인 및 청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설정하였다.

공연 내 음성해설은 따로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음성소개, 포스터 음성해설, 안내보행 등을 준비하여 시각장애인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인 관객 모니터링을 통해 공연 내 자막과 수어통역사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 관객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도 떠오른다.

시각장애인 관객이 안내 보행을 신청하셔서 혜화역 2번 출구에서 만나 극장 내 티켓수령 및 물품 보관, 관객과의 대화 참여, 공연 종료 후 다시 혜화역 2번 출구까지 안내보행을 지원했다. 안내보행을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총 3인이었다.

극의 이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몇몇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게 되는 부분(유진과 하나가 책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음료 대신 먹으라고 건넨 것이 무엇이었는지, 특정 장면에서 관객들이 웃은 이유 - 유진에게 후광이 비침, 마지막 장면에서 유진이 혼자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문에 공연 종료 후 안내보행 시 부가 설명을 드렸다.

조금 더 여력이 있었다면 접근성 매니저가 시각장애인 관객의 옆자리에 앉아 위스퍼링 통역을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휠체어 이용 관객에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은 접근이 불편한 극장이다. 엘리베이터가 소극장 정문 옆 구역에 위치하며 평소에는 펜스가 쳐져 있다. 휠체어 이용 관객이 있어야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고, 공연 시작 전후 30분 정도만 작동하는 극장 엘리베이터 정책은 다소 아쉬웠다.

휠체어 이용 관객이 사전예매가 아니라 당일 현장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목발을 짚은 관객도 엘리베이터를 타겠다고 문의를 주신 적도 있기 때문에, 따로 매일 극장 측에 요청을 드리지 않더라도 접근성 공연은 공연 전후 30분은 상시로 엘리베이터가 켜져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현 상황에서 휠체어 이용자 관객은 최소 공연 시작 10분 전에는 극장에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은 관객 한 분이 공연 시작 3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셔서 전화로, 마중으로 하우스 팀과 함께 독촉(?)을 한 적이 있다. 지연 입장 제도가 있지만, 장애인 관객의 경우에는 지연 입장에 소요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하는 극장의 경우 입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접근 환경에 대해서는 극장과 대관팀의 유연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관객들의 공연 후기가 웹진 연극in에 게시되었다. 접근성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중요한 지점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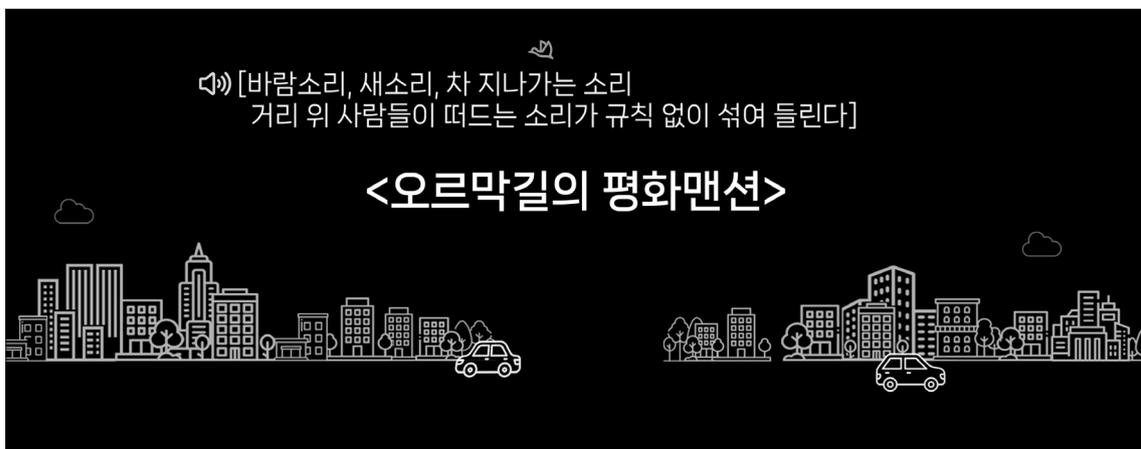
[https://www.sfac.or.kr/theater/WZ020300/webzine\\_view.do?wtldx=13289](https://www.sfac.or.kr/theater/WZ020300/webzine_view.do?wtldx=13289)

## ▶ 자막제작 : 임민정

프로덕션 내에서의 피드백과 논의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농인 관객분의 모니터링으로 음악정보에 대한 설명, 자막 송출 타이밍, 동선 또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시각 등 많은 부분에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막 오퍼레이팅 방식은 배우 호흡에 맞춰 대사가 나오도록 제작된 자막을 배우가 발화하는 타이밍에 송출하는 것이었고 꽤 고착되어 있습니다. 본 공연에서는 관람자가 무대 위 넓은 범위에 놓인 시각 정보를 충분히 볼 여유가 없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자막 송출 타이밍을 늦춰 모든 정보를 관객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각선이 길어 관람이 어려울 경우 제안될 새로운 대안이 생긴 것 같아 농인 관객 모니터링의 필요와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한글 자막만을 제작하거나 수어통역 회차를 따로 두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아쉬운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르코에서 지원한 사업이 ‘수어통역과 자막을 함께 볼 수 있어 좋았던’ 공연으로 더 많은 관객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접근성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막 첫 페이지  
(시각적 정보를 표기하기 위한 자막)

극단Y x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접근성 제작공연

#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2023년 9월 8일~17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                 |
|----|-----------------|
| 작  | 전서아             |
| 연출 | 강윤지             |
| 기획 | 나희경             |
| 배우 | 권은혜(유진), 이청(하나) |

|         |     |
|---------|-----|
| 무대디자인   | 조경훈 |
| 조명디자인   | 홍유진 |
| 음향디자인   | 목소  |
| 무대감독    | 이효진 |
| 조명오퍼레이터 | 김소영 |
| 음향오퍼레이터 | 김연경 |

|           |                  |
|-----------|------------------|
| 수어번역      | 김홍남              |
| 수어통역      | 조유나(유진), 이수현(하나) |
| 자막해설 제작   | 임민정              |
| 자막해설 운영   | 이수림              |
| 자막해설 장비   | (주)엠투비주얼         |
| 그래픽/사진    | 이미지 작업장          |
| 접근성 영상 제작 | 전혁진              |
| 접근성 자문    | 박재철, 정희선         |
| 실시간 문자통역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 관객지원      | 황수희 극장운영부 대리     |
| 과정기록      | 강윤지              |
| 접근성 매니저   | 강보름              |
| 접근성 프로듀서  | 이유진 극장운영부 차장     |
| 접근성 제작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극단Y x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접근성 제작공연

#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 접근성 제작 과정 기록

|      |                       |
|------|-----------------------|
|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 발행인  | 강량원                   |
| 발행일  | 2023년 12월             |
| 기록작가 | 강윤지                   |
| 디자인  | 디자인 마루                |

본 기록집에 수록된 도판 및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